

전남대병원·광주기독병원, '오방상' 수상

5·18당시 부상자 치료·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 기여 "오방(五放) 최흥종 선생 정신 계승·나눔 활동 지속"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이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오방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YMCA는 13일 "최근 오방최흥종기념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제6회 오방상을 공동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이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오방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YMCA는 13일 "최근 오방최흥종기념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제6회 오방상을 공동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환자를 돌보고 치료병상을 운영해 중증환자 치료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고생 많았던 의료진들에게 주는 상이라 더욱 기쁘다"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의료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

역공동체를 지키고 함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오방 선생님이 광주기독병원에서 일신 선교사님과 함께 나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등 평생을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헌신적인 삶을 사신 것을 광주기독병원 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은 오방정신을 계승해 섬김과 나눔, 생명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YMCA는 최근 오방최흥종기념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제6회 오방상을 공동 수여했다. 사진은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광주기독병원 제공>

"겨울철, 차 마시는 습관 면역력 높인다"

한의학계 "자소엽차·진피차·생강차 등 추천"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군이 엄습했다.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와 독감 등은 물론 기침, 콧물, 두통, 인후통 등의 각종 호흡기질환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의학계에 따르면 한방에는 '정기존내(正氣存內)', '사불가간(邪不可干)'이라는 표현이 있다. 내 몸 안의 기운(면역력 등)이 탄탄하면, 사기(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가 침범할 틈을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내 몸 안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게 겨울철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들면서 목이 아프거나 기침, 가래가 생기고 두통이 오는 감기 증상에 효과적이다. 게다가 생강은 구토 등 소화장애 증상에 효과적이다.

만약 오한이 심하다면 계피와 함께 우려내 마시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생강의 아린 맛 때문에 위장에 자극이 있다면 꿀을 섞어 마시면 증상이 덜해진다.



이중 차 마시는 한방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차(Tea)는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잎을 말린 후 우려서 마시는 음료를 통칭하는데,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음료 중 하나다.

◇진피차
겨울철 영양 간식인 꿀을 활용한 진피차 또한 건강 관리에 좋은 한방차 중 하나다. 진피는 골결절을 말린 것으로, 따뜻한 성질을 지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골결절에 농축돼 삼극한 항을 내는 리모넨 성분은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겨울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 관리에도 좋은 연구 결과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차를 마시는 건 건강과 치료의 목적이 컸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 들어서는 폴리페놀, 카테킨과 같은 차의 주요 성분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내는 것으로 밝혀지는 추세다.

국내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영양 진보'(Advances in Nutrition, 2020년)에 발표한 논문 따르면, 녹차와 홍차 등의 차 섭취와 관련해 전세계에서 발표된 64개의 연구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 25개 암 중 구강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11개 암에서 발생률을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먹고 남은 골결절을 활용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다. 물에 식초나 소금을 넣어 골결절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 잘게 썰어 일주일 정도 건조한다. 이어 골결절 20g을 물 300mL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 마신다. 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자소엽차
자소엽(紫蘇葉)은 성질이 따뜻하면서 맛이 신 약초로, 한의학에서는 감기 증상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됐다. 모양이 깻잎과 비슷한 차조기라는 식물의 잎을 말려 우려먹는 방식이다.

◇오과차
한방차는 근육격계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겨울이면 시러오는 무릎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무릎 연골 보호에 효과가 있는 모과차가 권장된다.

김원장은 "겨울철 심해지는 무릎 통증의 원인은 낮아진 기온으로 경직된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에 있다"면서 "모과의 사포닌 성분은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해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방에선 이 약초가 오한과 기침이 나거나 감기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는 "자소엽차를 마시면 땀을 내 오한이 풀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감기가 자주 오는 사람에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가래와 기침이 심하다면 도라지를 같이 넣어 우려 마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생강차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면서 맛은 아리고 신 편이다. 찬 기운에 노출돼 오한이

조선대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환자안전 등 신뢰받는 의료기관 인정...양질 서비스 제공 기대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12월27일까지이며, 이번 인증으로 조선대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재차 인정받았다.

지난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간 평가를 실시한 인증 조사는 병원 전반을 둘러보며 의료의 질, 환자안전, 병동 및 각종 시설, 환자안전과 관련된 규정 등을 자세히 살피고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4주기 인증조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환자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감염관리 시스템 ▲환자안전활동 시스템 ▲시설 및 환경안전 ▲의약품관리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관리 등 병원 전 부문에 걸쳐 세밀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0년, 처음 획득

한 1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이번에 획득한 4주기 인증까지 더욱 강화된 기준의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중 병원장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은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되어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며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지역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원재연 피아니스트 '치유의 선율' 호응

화순전남대병원 지하 대강당서 '치유-천상의 소리' 연주회

'한국 피아노의 신성'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사진)이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최근 환자와 지역민을 위한 치유의 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1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원재연 피아니스트는 지난 9일 오후 4시 화

순전남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치유-천상의 소리'를 주제로 연주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0월31일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 힘겹게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음악치유로 건강회복을 도와달라며 기부한 5천만원으로 169년 전통의 세계적인 피아노인 스타인웨이-보스톤 피아

노를 구입,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원 피아니스트는 지난 2017년 제61회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청중상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이화경향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했다. 또 프랑스 파리 롱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쾰른 칼트

버트크라이텐 프라이즈 등 많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 원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녹턴 2번 E♭장조'와 '왈츠 E♭장조', 슈만의 '환상곡 C장조' 등을 통해 환자와 지역민들에게 치유의 음악을 약 50분간 연주해 호응을 이끌었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선뜻 거액을 기부해주신 최현만 회장님은 물론 공연 때문에 매우 바쁜 원재연 피아니스트까지 환자를 위해 흔쾌히 연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흥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